

미주 올린 ‘오징어게임’ 오영수 “모두가 승자”

‘놀면 뭐하니?’ 안방에 재미·감동 동시 선사 58년차 배우 오영수, 진한 울림을 주는 인터뷰

‘놀면 뭐하니?’ 신인기자 유재석, 정준하, 하하, 신봉선, 미주가 만든 따뜻한 뉴스로 짝 채운 ‘뉴스데스크+’가 안방에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다. 특별 초대석에선 ‘오징어 게임’ 주역인 58년차 원로배우 오영수가 등장, 진한 울림을 주는 인터뷰로 위로와 진심을 전했다.

1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MBC TV 예능물 ‘놀면 뭐하니?’는 수도권 기준 6.9%를 기록했다. 최고의 1분은 배우 오영수가 인터뷰 마지막에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라며 소감을 전한 장면으로, 9.8%까지 치솟았다.

‘뉴스데스크+’를 준비하는 유재석은 실버 세대의 키오스크 사용 실태 취재를 위해 영화관을 찾은 가운데 어르신들과 팬미팅을 방해하는 만남속 인터뷰에 성공했다.

‘댄스 챌린지 열풍’을 취재하기 위해 나선 정준하와 하하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 모니카와 영상 인터뷰에 성공했다. 정준하는 모니카의 팬임을 수줍게 드러내며 하하의 황금인맥에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은 댄스 학원을 찾아가 어린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수강생들을 인터뷰하고 함께 댄스 챌린지 안무를 배웠다.

랜선 소개팅 아이템을 기획한 미주와 신봉선은 취재를 위해 직접 소개팅에 나섰다. 생애 첫 소개팅이라는 미주는 소개팅남이 영상에 등장하자마자 호감을 표현하더니 공통점 찾부터 애프터 신청까지 폭주하는 과몰입으로 폭소를 자아냈다.

신봉선 역시 훗날 소개팅남과 랜선으로 대면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 화사한 미소를 장착, 귀여운 애교까지 대 발출했고 미주는 “언니 너무 진심인데!”라고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완성된 ‘뉴스데스크+’가 공개된 가운데 유재석과 미주가 앵커석에 앉아 뉴스를 전했다. 하하와 신봉선은 개발랄한 매력으로 스포츠 뉴스를, 정준하는 단풍잎 장식 바바리 코트를 입고 등장, 시를 낭송하며 날씨를 전하는 전문후루 기상 캐스터의 모습으로 시선을 강탈했다.

앵커 경험이 있는 유재석은 한층 안정적인 진행과 디션으로 뉴스를 이끌었고 미주 역시 긴장감 속 웃음을 계속 빼고 뉴스 앵커에 몰입했다. 유재석 기자부터 하하-정준하 기자, 신봉선-미주 기자는 직접 만든 뉴스가 보도되자 세상 뿌듯함을 드러냈다.

특별초대석에서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통해 글로벌 스타로 등극한 58년차 원로배우 오영수가 등장했

다. 오영수 배우는 감독과의 인연으로 ‘오징어 게임’에 출연하게 된 배경과 현재 뜨거운 인기를 느낄 때의 기분, 우연히 친구를 따라 극단에 갔다가 배우가 된 사연은 물론, 60년 동안 평행봉으로 다져온 체력 관리 비결 등 어디서든 들을 수 없던 알찬 인터뷰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유재석에 대한 인간적인 사람 같이라며 “꾸밈없고 과장되지 않고 팔도 아주 좋아한다”고 호감을 드러냈다.

가쪽끼리 다 함께 모여 밥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하며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오영수 배우는 “우리 사회가 1등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흘러 갈 때가 있다. 그런데 2등은 1등에게 져지만 3등에게 이겼지 않은가. 모두가 승자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승자는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승자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며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노배우가 살아온 삶의 귀재고 스란히 엮여오는 진정성 가득 인터뷰에 미주는 결국 눈물을 흘렸고 유재석 역시 울컥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오영수 배우는 “제가 우리 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아름다운’이란 말이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회...이 자리에 와서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두 분을 만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고 ‘아름다운’ 인터뷰를 마쳤다.



한편 방송 말미엔 JMT 신입사원 채용 최종 면접이 예고된 가운데 개성 만발 면접자들구 ‘오징어 게임’의 영화 인형으로 변신한 전무 신미나(신봉선의 등장)가 공개되며 더 강력해진 웃음을 기대케 했다.



원로배우 최지희, 별세

원로 배우 최지희(본명 김경자) 전 한국영화인원의회 회장이 17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최지희는 알츠하이머 등 오랜 기간 지병으로 투병하다 이날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1940년 일본 오사카에서 살고 있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해방 이후인 1946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1958년 영화 ‘아름다운 악녀’로 데뷔한 최지희는 ‘김약국의 딸들’, ‘명동에 밤이 오면’, ‘단발신사’, ‘부부교대’, ‘사나이혼장’, ‘잡초들의 봄’, 드라마 ‘인간의 땅’ 등에 출연했다.

1971년 영화 ‘케이라스의 황금’에서는 의상감독으로 활약했으며 이후 패션 디자이너로도 활동했다.

영화 ‘김약국집 딸들’로 1964년 제1회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 제3회 대중상영화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빈소는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



에스파, 미국 ‘켈리 클락슨 쇼’ 첫 출연

“세상 놀라게 했다”

걸그룹 ‘에스파(aespa)’가 미국 인기 토크쇼 ‘켈리 클락슨 쇼(The Kelly Clarkson Show)’에 첫 출연해 화제다.

에스파는 16일 오전 3시(한국시간 기준) 방송된 미국 NBC ‘켈리 클락슨 쇼’에 출연, 신곡 ‘새비지(Savage)’ 무대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날 호스트인 켈리 클락슨은 “에스파는 ‘블랙 맘바(Black Mamba)’로 K팝 그룹 데뷔곡 뮤직비디오 중 최단 기간 유튜브 조회 수 1억부를 달성해 세상을 놀라게 했으며, 그 다음 발매한 싱글 ‘넥스트 레벨(Next Level)’도 이보다 빠르게 1억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앨범 ‘새비지’가 이제 막 공개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에스파의 첫 미니앨범 타이틀곡 ‘새비지’ 무대가 공개됐다. 에스파와 이들의 아바타 ‘아이-에스파(aespa)’가 함께 등장해 강렬한 곡 분위기와 어울리는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선사했다.

더불어 에스파는 ‘켈리 클락슨 쇼’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오늘 ‘켈리 클락슨 쇼’에서 이번 해 발매한 앨범의 신곡 ‘새비지’ 무대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 직접 뵙고 싶었지만 다음에 만날 날을 기대하겠다. 오늘 무대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에스파는 신곡 ‘새비지’로 국내외 각종 음원,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MBC M ‘쇼! 챔피언’, KBS ‘뮤직뱅크’에서 1위에 올랐다. 특히 ‘뮤직뱅크’에서는 ‘새비지’와 함께 지난 싱글 ‘넥스트 레벨’이 1위 후보로 올라오며 자체 격돌을 펼치는 이례적인 인기를 보였다.

여순사건 담은 영화 ‘동백’...내일 지역영화관 개봉



21일 전국 개봉

이앤티(감독 신준영)축이 19일 여수·순천 지역 CGV, 메가박스 영화관을 시작으로 21일 전국 개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통과로 재조명되고 있는 ‘여순사건’의 아픔을 담은 영화 ‘동백’은 여순사건 당시 아버지를 잃은 노인 황순철과 가해자의 딸 장연실의 세대를 이어온 악연을 풀기 위한 갈등과 복수 그리고 화해와 용서를 담은 영화다.

영화 ‘동백’은 여수시가 여순사건에 대한 지역특화 스토리 콘텐츠 육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1년 동안 제작했다.

영화 후반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위해 모집한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에 시민사회단체와 산단 업체, 유족회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두 달 만

‘우당탕탕 안테나’ 300만뷰 돌파

20일 미니콘서트

첫 공개를 앞두고 진행된 라이브 토크에서 유희열 대표가 내건 300만뷰 조회수 공약에 따른 것이다.

콘서트는 카카오TV와 안테나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음원사이트 멜론에서 라이브로 생중계된다. 페퍼톤스, 샘김, 이진아, 적재가 라이브 무대를 선보이며, 유희열 대표 또한 스페셜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카카오TV 오리지널’ ‘더듬이TV : 우당탕탕 안테나’는 안테나의 전무후무 역대급 전사 예능 프로젝트로, 안테나 아티스트들의 우당탕탕 반전 매력도 펼쳐진다.

한편, ‘우당탕탕 안테나’는 매주 월, 금요일 오후 5시 카카오투에서 공개된다.

‘더듬이TV: 우당탕탕 안테나’가 미니콘서트를 개최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투 오리지널 ‘더듬이TV : 우당탕탕 안테나’의 누적 조회수 300만뷰 돌파를 기념해, 오는 20일 오후 6시 안테나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미니 콘서트를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갯차’ 김선호 “하루하루가 감동” 종영 소감

타키타카 힐링 로맨스

‘갯마을 차차차’ 신민아, 김선호, 이성이가 종영 소감을 전했다.

tvN 주말극 ‘갯마을 차차차’는 현실주의 치과 의사 윤해진(신민아 분)과 만능 배수 흉반장(김선호 분)이 짝내 사람내을 가득한 바닷마을 ‘공진’에서 벌이는 타키타카 힐링 로맨스다.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식해 커피’의 로맨스에서는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달달한 설렘을 선사했고, 공진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는 똥 터지는 웃음과 가슴 뭉클한 감동을 동시에 전달하며 힐링 로맨스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극중 윤해진 역을 통해 특유의 사랑스러운 매력부터 섬세한 감정 연기까지 자유자재로 선보이며 로코코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신민아는 “갯마을 차차차”를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한 마음 뿐”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다.

그는 “5개월 동안 너무 즐겁게 촬영했기 때문에 시원섭섭한 마음보다 아쉬움이 크다”며 “해진이를 연기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행복한 시간으로 남은 만큼 많은 분들에게도 저희 드라마가 따뜻한 휴식이 되었든 작품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능력 만렙 공진의 히어로 흥두식 역을 통해 새로운 인생 캐릭터를 경신한 김선호는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고 감동이었다. 배우들을 비롯해 모든 스태프 분들도 드라마 촬영하는 내내 힐링을 받았던 기억이 많았다”며 “시청자들도 우리 드라마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힐링 받으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스타 예능 PD 지성현 역을 통해 깊은 인상을 남긴 이상이는 “따뜻한 공진에서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다”며 “신민아, 김선호, 그리고 공진의 모든 배우들과 함께 연기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항상 건강하시라”고 소감을 밝혔다.

연출을 맡은 유재원 감독과 대본 집필을 맡은 신하은 작가도 종영 인사를 전했다.

유 감독은 “시원 섭섭하다. 수고한 배우들과 스태프들, 작가가 감사드린다. 촬영에 협조해주신 섯블리 청하시장 주민들, 화정 핏집 사장님 내외와 포항시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am 조권·이창민, 다음달 1일 컴백

신보 콘셉트 이미지 공개

그들 ‘2am’이 가요계로 다시 돌아온다. 15일 자정 2am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새 미니앨범 ‘발라드 21 가을/겨울(Ballad 21 F/W)’의 조권, 이창민 콘셉트 이미지를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조권은 울퉁한 눈빛으로 한층 성숙해진 감성을 표현했다. 셔츠에 니트를 레이어드한 그는 심플하고 댄디한 스타일링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반면 이창민은 시크하면서도 절제된 남성미를 선보이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그의 여유로운 포즈는 마치 화보를 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했다. 이후 공개될 임슬옹과 정진운의 콘셉트 이미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2am의 새 미니앨범 ‘발라드 21 가을/겨울’은 오는 11월 1일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한다.